

## 신체가치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신체조작성척도와 신체편향성척도

김 완 석<sup>†</sup>

유 연 재

아주대학교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가치관의 일부로서 ‘자신의 신체를 자의적으로 조작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신념인 신체조작성과 ‘신체의 외모(체형)와 신체의 건강(체기능) 중 어느 것이 더 자신에게 가치있는가’에 대한 신념인 신체편향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두 개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1에서는 김완석과 차주화(2006)의 연구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 추가하여 작성한 총 23문항(신체조작성 13문항, 신체편향성 10문항)을 28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문항분석을 통해 문항수를 각각 12개와 9개로 줄였고, 요인분석을 통해 두 개념이 서로 다른 요인임을 밝혔다. 연구2에서는 연구1의 표본 중 142명 외에 새로이 382명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표집한 총 524명의 자료를 이용해서 척도의 심리측정학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확증적 요인분석으로 살펴본 요인구조는 연구1에 이어 두 요인으로 안정적이었고, 내적 합치도는 신체조작성과 신체편향성 모두 .80을 넘었고,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각각 .67과 .71이었다. 성별과 종교생활에 따른 차이를 검토한 바, 두 척도 모두 예상했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OBC의 하위요인들과 MBSRQ의 외모지향성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도 예상했던 것과 일치해서 척도들의 수렴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고, 신체관련 소비행동경험과 의도를 준거로 하는 분석결과는 개발한 척도들의 준거타당도를 입증해 주었다. 향후 연구방향과 척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신체가치척도-조작성, 신체가치척도-편향성, 신체이미지

<sup>†</sup> 교신저자: 김완석,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번지  
E-mail : wsgim@ajou.ac.kr

현대 심리학은 전통적으로 심리적 현상에 관심을 두었으며, 자연이라는 물리적 환경자극과 다른 사람 또는 집단이라는 사회적 환경자극에 대한 정보처리, 지각과 평가, 의미과약, 이들 자극과 관련한 정서경험과 의사결정, 외적행동 등을 개인 수준에서 다루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신체와 관련한 심리적 현상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말하자면, 하나의 자극으로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정보처리와 지각, 평가, 의미, 정서경험, 의사결정과 행동의도 등에 대해서는 주류심리학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이는 현대 심리학이 몸과 마음을 분리된 존재로 개념화하는 이원론적 전통을 따라 마음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몸에 관한 마음의 문제 즉 자신의 몸에 대한 심리적 경험까지도 도외시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한다.

인간의 행동은 대상 자체의 객관적 특성보다는 개인이 파악한 의미적 특성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객관적으로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는 대상일지라도 개인이 그 대상을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면, 회피행동을 보이게 된다. 말하자면, 인간의 행동은 환경 특성 그 자체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다는 그 환경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신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자극 또는 대상이며, 따라서 개인이 파악한 신체의 의미는 자신과 타인의 신체를 다루는 모든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객관적인 의학적 검진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신체를 병약한 것으로 파악하는 사람은 병치료를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신체란 유기체로서 물질의 집합이면서도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특정 개인의 존재가 물질화 또는 체화(embodiment) 한 것이며, 사회적 동

물로서 개인이 어떤 종류의 사회적 존재인지를 표현해내는 수단이기도 하다(Harre, 1991). 자기 신체의 의미 즉, 신체개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방식을 결정짓는다. 신체란 하나의 실체로서 인간이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을 갖는데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한 개인으로서 '자기'라는 생각은 자기의 신체가 하나의 물질로서 시공간을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토대로 하며, 사회적 존재로서 '자기'라는 생각은 자신이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의 몸이 타인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하는 생각을 토대로 하기 때문이다(김완석, 차주화, 2006).

특히,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기계나 하등동물과 달리 의도와 목적을 갖고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이며,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행위자(agent)이다. 이런 의도와 목적에 의해 지향성을 가진 행위에는 생물학이나 물리학과 같은 자연과학이 의존하는 결정론적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합리성의 원리가 작용한다(이정모, 1997).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몸을 자신의 의도와 목적에 맞추어 다루는 모든 행동은 인간이 자신의 몸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김완석, 김철민, 2002).

그럼에도, 앞서 말한 것처럼 심리학에서 신체 심리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다. 우리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비만인구의 증가나 외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관련된 섭식장애와 성형수술 등은 많은 서구사회에서도 이미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그 외에 수요에 비해 기증자가 턱없이 부족한 장기이식의 문제라든가, 매장문화로 인한 국토이용의 비효율성 등 우리 사회의 특수한 문제들도 모두 신체의 의미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들이다.

신체자체를 탐구대상으로 한 가장 큰 분야는 생물학과 이를 토대로 하는 의료분야의 연구였다. 그 외에 스포츠학 분야와 의류학 분야에서도 신체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심리학계에서는 주로 섭식장애나 성형수술과 관련해서 ‘신체이미지(body image)’라는 개념을 토대로 임상심리학 분야에서 일부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위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신체개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되고 있다(예를 들어, Avalos, Tylka, & Wood-Barcalow, 2005; Williams, Cash, & Santos, 2004).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2002년에 창간된 Body Image라는 학술지를 통해 연구결과들을 공유하고 있다.

신체의 의미에 대한 연구들은 신체만족, 외모평가, 외모만족, 신체왜곡, 신체스키마, 신체지각, 신체적 매력, 신체존중감 등 매우 다양한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개념들에 관한 합의할만한 정의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예를 들어, Pruzinsky & Cash, 2002). 하지만 이 같은 개념의 다양성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실제로 ‘신체이미지’가 매우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체이미지의 다양한 측면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정되기도 한다.<sup>1)</sup> 이 같은 개념의 다양성

에 따라 신체의 의미를 측정하는 측정도구들도 매우 다양하게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척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번안되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이상선과 오경자(2003)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척도(Sociocultural Attitude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SATAQ, Heinberg, Thompson, & Stormer, 1995)를 한국판으로 개발했고, 박은아(2003)는 객체화신체의식(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OBC, McKinley, & Hyde, 1996)의 심리측정학적 특성에 관한 분석결과를 보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개념들과 측정에는 몇 가지 약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신체 이미지’를 다룬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개념의 대상을 신체의 외적인 특성 즉 체형 또는 외모에 한정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신체의 특성을 최소한 체기능(bodily function)과 체형(bodily shape)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Harre, 1991), 대부분의 연구들은 신체기능에 대한 개인적 의미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신체이미지 관련 측정도구들이 대부분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나 지각 즉 자신의 신체를 얼마나 부정적(또는 긍정적)으로 파악하는가 또는 자신의 신체를 얼마나 큰 것으로(또는 작은 것으로) 또는 무거운 것으로(또는 가벼운 것으로) 지각하는가를 측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임상적 관점에서 병리적인 신체행동을 다루면서 ‘부정적’ 신체이미지가 갖는 부정적 결과들에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암묵적 인식 때문인 것 같다. 이에 비하면, 이 분야에서는 일상용어인 ‘신체이미지’를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정하여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간주하고, 실제 연구에서는 각기 더 좁게 정의한 개념들을 사용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1) 이 분야의 연구를 주도해 온 Cash(2004)는 2004년에 학술지를 창간해서 초대 편집장을 맡았는데, 학술지의 이름이 ‘Body Image’가 된 것은 ‘신체 이미지’를 다차원적 개념으로서 이 분야의 연구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개념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정통 심리학 분야에서는 ‘이미지’라는 개념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어떤 심리학 개론서에서도 ‘이미지’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이 개념이 그 포괄범위가 너무 넓어서 과학적

관심을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차원의 측정치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신체에 대한 더욱 기본적인 가치나 신념(예를 들면 기독교 사회에서 인간은 하느님의 창조물이라는 생각이나 유교사회에서 신체발부수지부모와 같은 당위적 신념)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기형이나 병리적인 섭식행동을 설명하는 데는 쓸모가 있지만, 심각한 성형수술이나 장기기증, 주검처리(예를 들면, 화장이나 매장)와 같은 중요한 신체다루기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자신의 외모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해서 장기기증을 덜 한 다거나 아니면 화장을 원한다거나 하는 등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김완석 등(2002)은 신체가치를 개인의 신체에 대한 평가나 지각에 비해 더 근본적인 ‘신체의 개인적 사회적 의미에 대한 주관적 지각으로서, 신체의 의미에 대한 학습 가능한 일련의 가치’로 정의하고 이러한 가치를 반영하는 당위적 신념으로서 ‘신체조작성’과 ‘신체편향성’이라는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

신체조작성이란 ‘신체를 자신의 의지에 따라 마음대로 조작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 신념을 뜻하며, 신체편향성이란 ‘신체의 외모(체형)와 신체의 건강(체기능) 중 어느 것이 더 자신에게 가치있는가’에 대한 개인적 신념을 뜻한다(김완석 등, 2006, 참조). 이 같은 신념은 일종의 당위적 신념으로서 자신의 신체특성에 대한 지각이나 평가와 다르다. 즉,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변형시켜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가진다 해서 내 몸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내 몸을 실제보다 더 큰 것으로 지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런 당위적 신념은 문화와 사회적 이념의 영향을 받아 오랜 시간동안에 걸쳐 학습된 것으로서 지각과 평가에 비해 뿌리

깊게 내면화한 것이어서 자신의 신체를 다루는 다양한 일상적 행동들(예를 들면, 화장이나 운동, 다이어트 등) 뿐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행동들(예를 들면, 지방흡입술이나 가슴확대술같은 성형수술이나 장기기증, 장례형태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완석 등(2006)은 신체조작성과 신체편향성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를 통해 두 개념의 독립성과 각 척도의 내적합치도, 준거행동에 대한 변별력 등을 살펴본 바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사용한 신체조작성 척도는 양분척도(dichotomous scale)여서 전통적인 요인분석법으로 분석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West, Finch, & Curran, 1995),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신체평가나 지각의 측정치와 관련성을 살펴보지 않았다. 본 연구는 김완석 등(2006)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척도의 문항을 개선하고 각 척도의 심리측정학적 특성을 점검함으로써 후속 연구에 가능한 측정도구를 완성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두 개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 연구 1

연구 1의 목적은 새로운 표본을 이용하고 또한 이분척도의 분석에 적합한 요인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김완석 등(2006)에서 밝혔던 두 척도의 요인구조의 안정성을 다시 검토하고, 척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문항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 방 법

### 조사대상

수도권의 0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대상으로 320부의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수거된 질문지 297개 중 응답이 불성실한 16개를 제거하여 실제 분석에서는 281개(남자 165, 여자 116)의 자료를 이용했다. 응답자들의 연령범위는 19세-28세였다.

### 측정도구

#### 신체가치-조작성 척도(Body Value Inventory - Operability).

김완석 등(2006)의 13문항 중 변별력이 낮은 문항들을 제거하고 그 외에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여 모두 13개의 문항을 제작하였다. 이 척도의 지시문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각 문항의 두 보기 중에서 **자신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만 골라주세요. 둘 다 자신의 생각과 같다고 생각되는 경우라도,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생각과 가까운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 예) 이성 친구를 사귄 때……
- 1) 상대방의 외모가 더 중요하다
  - 2) 상대방의 성격이 더 중요하다

#### 신체가치-편향성 척도(Body Value Inventory - Inclination)

김완석 등(2006)의 문항 일부를 수정하여 10 문항을 제작하였다. 이 척도의 지시문은 다음과 같다.

다음 문항은 왼쪽과 오른쪽에 서로 반대가 되는 두 가지 생각이나 행동이 있습니다. 각 문항을 읽고 **지금 현재 자신에게 더 중요한/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문장 쪽에 그 중요한/좋은 정도를 고려해서 표시**하세요. 예를 들어 -2는 왼쪽 문장이 오른쪽 문장에 비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고 -1은 어느정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2는 오른쪽 문장이 왼쪽 문장에 비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고 +1은 어느정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 내가 하고 싶은 직업 을 갖는 것 |  -2 |  -1 |  0 |  +1 |  +2 | 남들이 인정하는 직업 을 갖는 것

남들이 인정하는 직업 을 갖는 것이 어느정도 중요하다면 다음과 같이 +1에 표시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직업 을 갖는 것 |  -2 |  -1 |  0 |  +1 |  +2 | 남들이 인정하는 직업 을 갖는 것

## 결과 및 논의

### 문항분석과 구성개념 타당도

신체가치 척도에서 신체조작성 척도는 양분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신체편향성은 연속변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양분척도의 경우 척도의 연속성을 가정하는 전통적 요인분석은 표준 오차와 유의성 검증의 편향을 가져오고(West, Finch, & Curran, 1995), 요인 수를 과대 추정하고(Carroll, 1945), 요인계수를 과소추정하게(Gibbons, Clarke, Von Ammon-Cavanaugh, & Davis, 1985;

Muth'en, 1978; Parry & McArdle, 1991) 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약점을 개선하여 척도가 양분문항과 연속문항이 섞여있는 경우에도 요인분석이 가능한 Mplus 3.0을 이용하여 신체조작성 척도 13문항과 신체편향성척도 10문항을 혼합 양분문항 요인분석법(Mixed-BFA; Binary Factor analysis)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정치는 WLSMV(weighted least squares mean and variance adjusted estimator)를 이용하였고, 회전방식은 직교회전인 Varimax 를 적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eigenvalue가 1이상인 요인의 수는 4개로 나타났지만, Scree 검사에서는 2개의 주요 요인이 나타났고, 신체조작성과 신체편향성의 두 요인 구조를 가정하였기 때문에 요인수를 두 개로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체조작성 문항은 모두 요인 1에, 신체편향성 문항은 모두 요인 2에 높은 요인부하량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각 문항에 대한 문항분석을 요인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요인분석과 문항특성분석을 이용해서 적절치 않은 문항을 제거하였는데, 신체조작성의 한 문항(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vs. 할 수 있다면 덜 늙는 것이 좋다)은 요인부하량이 .414로 다른 문항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문항-총점간 상관 .308로 낮아서 제거하였고, 편향성의 한 문항(신체가 건강한 이성 vs. 외모가 매력적인 이성)은 요인부하량 .305, 문항-총점간 상관 .326으로 나머지 문항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아서 제거하였다. 그 결과 신체조작성 12문항, 신체편향성 9문항으로 총 21문항이 추출되었다.

표 1은 이들 21문항을 다시 WLSMV와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와 문항-총점간 상관 그리고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를 나타낸다. 요인 1(신체조작성)은 전체 변량의 40.81%를, 요인 2(신체편향성)는 전체 변량의 19.5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두 요인은 문항전체 변량의 60.3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R-20으로 계산한 신체조작성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9 였고, Cronbach  $\alpha$ 로 계산한 신체편향성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8로 충분히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표 1. 신체가치척도 문항의 요인 부하량과 신뢰도

문 항		요인1	요인2	h <sup>2</sup>	문항- 총점상관	신뢰도
<b>신체조작성척도(BVI-O)</b>						
1. 사람의 신 체는	① 그 자체로 저마다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이다. ② 어떤 이상적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야 한다.	0.537	0.169	0.317	0.388	
2. 신체란	① 마음이 깃든 신성한 곳이어서 변화시켜서는 안된다. ② 마음과는 별도의 존재이다.	0.625	0.175	0.421	0.483	.889
3. 사람의 외모는	① 타고나는 것이어서 일부러 변화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② 할 수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변화시키는 것이 좋다	0.922	0.060	0.854	0.733	
4. 신체란	①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이므로 원래 모습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②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더 멋지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이 좋다.	0.861	0.091	0.750	0.670	
5. 사람의 체형 (외모)이	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②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변화시켜도 괜찮다.	0.856	0.024	0.733	0.643	
6. 사람의 신체는	① 부모/신/자연이 물려준 것이므로 함부로 변화시켜서는 안된다. ② 자신의 것이므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변화시켜도 된다.	0.817	0.162	0.694	0.651	
7. 타고난 신체의 특성을	①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②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괜찮다.	0.858	0.088	0.744	0.663	
8. 자신의 체형 (외모)이	① 마음에 안 든다면 내 마음에 들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좋다. ② 마음에 안 들어도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0.807	0.189	0.687	0.596	
9. 사람의 체형 (외모)은	① 자신의 마음에 들도록 변화시켜야 한다. ② 일부러 변화시키기 보다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0.747	0.065	0.562	0.572	
10. 몸이 마음에	① 안 들면 변화시켜도 좋다 ② 안 들어도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0.840	0.025	0.706	0.611	
11. 타고난 신체 특성을	① 변화시키는 것이 좋다. ② 변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다.	0.680	-0.044	0.464	0.492	
12. 신체를 원하는 대로 변화시키는 것은	① 별로 거리낄 것이 없다. ② 좋지 않다.	0.791	0.162	0.652	0.619	
<b>신체편향성 척도(BVI-I)</b>						
1. 아름다운/멋진 몸매를 갖는 것 vs 건강한/튼튼한 신체를 갖는 것		0.231	0.735	0.594	0.713	
2. 건강에 좋은 음식 vs 미용에 좋은 음식		0.018	0.664	0.441	0.613	.882
3. 몸매 관리 음식 vs 체력 보강음식		0.119	0.667	0.459	0.637	
4. 몸에 병이 나지 않는 것 vs 몸매가 망가지지 않는 것		-0.055	0.625	0.394	0.559	
5. 외모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 vs 신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0.275	0.708	0.577	0.692	
6. 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것 vs 외모를 위해 투자하는 것		0.107	0.739	0.558	0.696	
7. 건강을 위한 운동 vs 체중감량/체형을 위한 운동		0.048	0.698	0.490	0.652	
8. 건강 보조제 vs 다이어트 보조제		-0.029	0.456	0.209	0.414	
9. 날씬한(매력적인) 외모를 유지하는 것 vs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것		0.219	0.687	0.520	0.666	
eigenvalue		8.570	4.094			
설명변량비율 (%)		40.810	19.495			

주: Mplus는 설명변량% 및 누적설명%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 제시된 설명변량비율은 eigenvalue를 문항수(관찰변인의 수; 21)로 나누어서 계산한 것임

## 연구 2

연구 2는 연구 1에서 확정한 척도의 심리측정학적 특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 1의 표본 중 일부를 포함하는 새로운 표본을 구성하였다. 연구1의 표본 중 일부를 포함시킨 것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구성타당도와 관련해서는 성별/연령집단별/종교별 차이를 분석하고, 교차타당화와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검토하고자 했고, 소비관련 행동경험과 의도를 준거로 해서 준거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신체조작성과 신체편향성은 성별이나 연령, 종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들 두 가지 당위적 신념은 사회문화적 경험에 의해 학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인구적 변인들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연령이 낮을수록,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신체를 자의적으로 조작해도 된다고 믿는 경향이 많고 체형을 체기능에 비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신체조작성과 신체편향성은 객체화 신체 의식(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이하 OBC)의 하위 개념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OBC는 McKinley와 Hyde(1996)이 사회구성주의적 관점과 여성학의 관점을 토대로 개발한 척도로서, 타인에게 자신의 외모가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관심 정도를 측정하는 감시성 척도(Surveillance scale),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를 내면화함으로써 생겨나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수치심 정도를 측정하는 수치심 척도(Body Shame scale),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외모(체중이나 타인에게 보이는 모습)를 통제하고자 할 때,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가를 측정하는 통제신념 척도

(Control Belief Scale) 라는 세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조작성 척도는 신체를 자의적으로 조작해도 되는 것인가(ought to)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OBC의 하위척도들과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OBC의 하위 척도들이 모두 외모에 대한 의식의 여러 측면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신체조작성 척도는 이들 하위척도들과 척도와 높지는 않지만 유의미한 상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이 척도의 값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외모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또는 그 반대로 외모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외모를 자의적으로 조작해도 된다는 신념이 강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외모를 더 자주 의식하며, 수치심도 더 많고, 자신의 외모에 대한 통제력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비슷하게, 신체편향성 척도는 외모와 건강의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감시성과 수치심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통제신념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고 예상할만한 근거가 없다.

한편, 다차원 신체 자기 검사(Multidimensional Body Self-Relations Questionnaire: MBSRQ)의 하위검사인 외모지향성척도(Appearance Orientation scale)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인바(Cash, 1990), 이 척도도 신체조작성이나 신체편향성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특히 신체조작성보다는 신체편향성과 더 높은 상관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김완석 등(2006)은 신체가치 하위척도들이 신체관련 행동들에 대해 유의미한 예언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어서, 이 연구에서도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하였다. OBC나 MBSRQ의 하위척도들은 부적응적 섭식

행동이나 심리적 안녕감을 예언함을 보여주기 는 했지만, 화장이나 성형, 섭식제한, 건강식품 섭취, 신체관리를 목표로 하는 운동 등 다양한 신체관리 행동을 토대로 준거타당도를 검증하 지는 않았다. 신체조작성이나 신체편향성은 이 러한 다양한 신체관리 행동에 대해 유의미한 예언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 방 법

### 조사대상

세 개의 독립적 표본을 구성하였다. 표본 1 은 1차 연구의 조사대상자 중 142명(남 77명, 여 65명)을 다시 표집하였다. 이는 신체가치 척도 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었다. 표본 2는 대학생 표본으로서 대구 소재 二 대학생 127명(남 67명, 여 60명)이었다. 이들 두 표본은 후속 분석에서는 대학생 표본으로 통합하였다. 표본 3은 고등학생 표본으로서 경 기도 소재 고등학교 두 곳을 선정하여 300부의 질문지를 실시하였고 회수된 283부 중에서 응 답이 불성실한 28부를 제외한 255명의 설문지 였다(남 139명, 여 116명).

표 2. 연구 2의 표본 구성

표본	성별		계	비고
	여자	남자		
1	65	77	142	대학생
2	60	67	127	대학생
3	116	139	255	고등학생
계	241	283	524	

### 측정도구

#### 신체가치 척도

연구 1에서 확정된 척도로서 조작성척도 12 문항과 편향성척도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 작성척도는 양분문항으로, 편향성척도는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

McKinley와 Hyde(1996)의 OBC는 6점짜리 총 24문항으로서, 하위척도인 감시성 척도와 수치심 척도, 통제신념 척도(각 8문항)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 하위 척도의 신뢰도는 순서대로 .89, .75, .72로 나타났다. 한편, 이 척도는 박은아(2003)가 18문항으로 축소하여 연구에 이용했는데, 이때 각 하위 척도의 신뢰도는 각 각 .74, .82, .71 이 었다. 두 연구 모두 조사대상은 여자대학생이었 다. 본 연구에서는 박은아(2003)의 번역문항을 참 고해서 원래의 24문항을 모두 번안해서 사용하 였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Cronbach  $\alpha$ 로 계산 한 척도의 신뢰도는 감시성 척도가 .83, 수치심 척도가 .73, 통제신념 척도가 .68로 나타났다.

#### 외모지향성 척도(Appearance Orientation: AO)

Brown, Cash 및 Mikulka(1990)의 MBSRQ의 외 모지향성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 이 자신의 외모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의식 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조선명(2000)이 번안하여 사용 한 바 있는데, 이 연구에서 외모지향성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9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명 (2000)이 번안한 외모지향성 척도를 그대로 사 용하였고, 내적 합치도는 .83으로 나타났다.

### 신체관련 행동 경험과 의도

모발관리와 같은 흔한 행동에서부터 안면윤곽 성형과 같은 흔치 않은 행동에 이르는 29가지 신체관리 행동을 수집하여 경험유무를 묻는 문항을 제작하였다. 또한 이들 29가지 신체관리 행동 외에 장기기증에 관한 두 문항을 추가하여 31개의 신체관련 행동에 관한 의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인구통계변수

응답자의 성별과 나이, 종교, 체중과 키를 측정하였고, 체중과 키를 이용해서 체질량지수(BMI)를 계산하였다.

## 결과 및 논의

### 신뢰도

#### 내적합치도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전체표본에서 신체조작성은 .871, 신체편향성은 .841이었고, 여성표본에서는 신체조작성 .871, 신체편향성 .860, 남성표본에서는 신체조작성 .867, 신체편향성 .794로 나타났다. 연구 1에서 신체조작성이 .889, 편향성이 .882였던 것에 비하면 다소 낮지만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었다.

### 검사-재검사 신뢰도

표본 1의 자료를 통해 신뢰도를 계산하였다. 검사-재검사의 간격은 4주였는데 신체조작성 척도의 경우는 .67, 신체편향성 척도는 .71로 나타났다. 신체조작성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예상보다 다소 낮았다.

### 구성타당도

#### 인구통계 변수에 따른 차이

표 3은 신체가치의 차원별 집단별 평균(표준편차)이다. 신체조작성의 경우 집단간 차이는 유의미했다,  $F(1, 520)=9.13, p<.001$ . 그 내용을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신체를 자의적으로 조작하는 것에 대해 더 허용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신체편향성의 경우에도 집단간 차이는 유의미했다,  $F(1, 520)=44.62, p<.001$ . 집단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여성이 남성보다 외모를 건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조작성과 신체편향성 모두 성별과 재학수준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3. 신체조작성과 신체편향성의 인구통계 집단별 평균(표준편차)

종속변인	전체 (n=522)	여 자			남 자		
		고등학생 (n=116)	대학생 (n=125)	계 (n=241)	고등학생 (n=139)	대학생 (n=144)	계 (n=283)
신체 조작성	6.23(3.73)	6.68(3.72)	6.82(3.63)	6.76(3.66)	5.54(3.67)	6.00(3.81)	5.77(3.74)
신체 편향성	17.69(5.10)	19.01(4.84)	19.38(5.81)	19.20(5.35)	16.97(4.52)	15.85(4.41)	16.40(4.49)

주: 신체조작성 점수범위는 0-8점이며, 점수가 클수록 신체의 자의적 조작에 긍정적인 것이다. 신체편향성 점수 범위는 8-32점이며, 점수가 클수록 건강보다는 외모를 중시하는 것을 나타낸다.

**종교생활 수준에 따른 차이**

종교에 따른 신체가치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표본을 종교가 없는 집단과 종교가 있지만 독실하지 않은 집단, 독실한 집단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신체조작성과 신체편향성의 평균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4는 집단별 신체가치척도의 평균(표준편차)이다.

신체조작성은 집단별 차이가 유의하여,  $F(2, 500)=11.93, p<.001$ , 독실한 교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신체를 자의적으로 조작하는 것에 대해 훨씬 더 부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편향성의 경우에도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나서,  $F(2, 500)=3.18, p<.01$ , 독실한 교인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외모보다는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10대에서 40대 까지의 표본을 대상으로 했던 김완석 등(2006)의 연구결과에서 독실한 교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신체의 자의적 조작을 더 부정적으로 보며, 또한 체형보다는 체기능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과 비교하면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다.

표 4. 신체조작성과 신체편향성의 종교집단별 평균(표준편차)

종속변인	전체 (n=503)	무신앙 (n=211)	비독실 (n=196)	독실 (n=96)
신체	6.23	6.29	6.92	4.70
조작성	(3.74)	(3.90)	(3.44)	(3.57)
신체	17.74	17.78	18.23	16.64
편향성	(5.12)	(5.34)	(5.16)	(4.37)

**교차타당도**

연구 1에서 확인했던 신체조작성과 신체편향성의 차원구조를 21개의 최종문항에 대해 새로운 표본으로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요인수를 두 개로 하는 모형에 관해 확증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표 5는 성별 및 표본 집단별로 두 요인 모형의 적합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5. 신체가치척도의 문항의 확증적 요인분석 모델적합도 및 신뢰도

		$\chi^2$	df	CFI	TLI	RMSEA	신뢰도	
							조작성	편향성
고등학생	남자(n=139)	394.469***	32	.894	.926	.078	.858	.789
	여자(n=116)	314.230***	23	.985	.992	.029	.878	.822
	전체(n=255)	745.370***	30	.921	.961	.060	.869	.811
대학생	남자(n=144)	598.573	30	.917	.939	.089	.877	.792
	여자(n=125)	351.075	23	.976	.983	.026	.866	.886
	전체(n=269)	880.413	27	.950	.974	.056	.873	.863
통합표본	남자(n=283)	984.887	36	.908	.941	.074	.867	.794
	여자(n=241)	682.474	26	.990	.995	.023	.871	.860
	전체(n=524)	1610.648	30	.935	.971	.054	.871	.841

\*\*\*  $p<.001$

주: 통합표본은 고등학생 표본과 대학생 표본을 합한 것임

표 6. 신체가치척도의 하위요인과 다른 요인 간의 상관

		신체조작성	OBC-감시성	OBC-수치심	OBC-통제신념	MBSRQ-외모지향성
전체 (n=503)	신체조작성	1	.272***	.121*	.328***	.264***
	신체편향성	.257***	.332***	.210***	-.092	.357***
남성 (n=268)	신체조작성	1	.286***	.199**	.153*	.212***
	신체편향성	.193***	.266***	.294***	-.149*	.285***
여성 (n=235)	신체조작성	1	.080	.117**	.218***	.268***
	신체편향성	.275***	.152***	.109*	.295***	.302***

\*\*\*  $p < .001$ , \*\*  $p < .01$ , \*  $p < .05$

일반적으로 CFI와 TLI는 .90이 넘으면 좋은 모형으로 평가하며, RMSEA는 .05이하이면 ‘매우 좋은’ 모형으로, .08이하이면 ‘좋은’ 모형으로서 수용가능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 바(홍세희, 2000), 자료를 신체조작성과 신체편향성으로 구분하는 두 요인 모형은 고등학생 집단이나 대학생 집단, 그리고 이를 통합한 자료 모두에서 수용가능한 적합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로 보면 남성표본보다 여성표본의 지표들이 기준수치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반면, 남성표본에서는 기준수치에서 약간 이탈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치가 남성표본에서 모형의 적합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 수렴 및 변별타당도

표 6은 신체조작성 및 신체편향성 척도와 OBC의 하위요인들 및 MBSRQ의 외모지향성 척도 간의 상관계수 행렬이다.

신체조작성과 신체편향성은 OBC의 감시성과 수치심, 통제신념, MBSRQ의 외모지향성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계수를 가지지만 그 수치는 그리 크지 않았다. 신체편향성도 비슷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OBC의 통제신념과는 유의미한 상관계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신체조작성은 OBC의 세 하위차원들과 유의미하지만 높지 않은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 그리고 신체편향성은 OBC의 하위차원 중 감시성과 수치심과는 유의미하지만 높지 않은 상관이 있지만 통제신념과는 상관이 없으리라는 예상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MBSRQ의 외모지향성과는 신체편향성이 신체조작성에 비해 더 높은 상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남성표본과 전체표본에서는 이런 예상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여성표본에서는 신체편향성과 신체조작성이 외모지향성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상관의 크기는 비교적 낮았다.

#### 준거관련 타당도

신체관련 행동경험과 의도를 준거로 삼아 신체가치 척도들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장기기증에 관한 두 문항과 질병치료를 위한 행동 두 문항을 제외한 27개 신체관련 행동을 운동(3문항)과 섭식(3문항), 미용(10문항),

성형(11문항)으로 범주화하여, 각 범주에 속하는 문항들의 평균값을 범주별 측정치로 삼았고, 27문항의 총점도 계산하였다.

표 7은 신체가치척도의 하위요인들과 신체관련 행동범주별 경험빈도의 상관계수이고, 표 8은 신체가치척도의 하위요인들과 신체관련 행동범주별 의도의 상관계수이다.

신체조작성과 신체편향성은 남녀 모두에서 신체관련 행동경험의 총점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신체를 자의적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경

향이 클수록, 건강보다는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클수록 신체관리행동의 경험빈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범주별로 보면, 신체조작성의 경우 운동경험을 제외한 섭식과 미용성형경험과의 상관계수가 유의미하며, 신체편향성은 네 범주의 경험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신체조작성과 신체편향성 척도가 신체관리 행동 경험이라는 준거를 유의미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7. 신체가치척도의 하위요인과 신체관리행동 범주별 경험빈도의 상관계수

		총 점	운동경험	섭식경험	미용경험	성형경험
전체 (n=512)	신체조작성	.208***	.080	.117**	.218***	.105*
	신체편향성	.299***	.152***	.109*	.295***	.192***
남성 (n=276)	신체조작성	.197***	.096	.107	.202***	.074
	신체편향성	.169**	.120*	.072	.082	.183**
여성 (n=236)	신체조작성	.155*	.037	.094	.166**	.103
	신체편향성	.243***	.137*	.075	.255***	.134*

\*\*\*  $p < .001$ , \*\*  $p < .01$ , \*  $p < .05$

표 8. 신체가치척도의 하위요인과 신체관련 행동범주별 의도의 상관

		총점	운동의도	섭식의도	미용의도	성형의도
전체 (n=512)	신체조작성	.196***	.095	.061	.267	.234
	신체편향성	.312***	.177***	.223***	.312***	.310***
남성 (n=276)	신체조작성	.177**	.068	.048	.279***	.219***
	신체편향성	.203***	.068	.153*	.191***	.281***
여성 (n=236)	신체조작성	.134*	.032	.029	.180**	.196**
	신체편향성	.254***	.107	.215***	.244***	.222***

\*\*\*  $p < .001$ , \*\*  $p < .01$ , \*  $p < .05$

한편, 신체관련 행동의 의도와 관련해서, 신체조작성과 신체편향성은 남녀 모두에서 신체

관련 행동 의도의 총점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신

체를 자의적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클수록, 건강보다는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클수록 신체관련 행동의 의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범주별로 보면, 신체조작성과 편향성 모두 성별에 관계없이, 특히 미용과 성형의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신체조작성과 신체편향성 척도가 신체관리 행동의 의도라는 준거를 유의미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sup>2)</sup>

이상의 결과는 김완석 등(2006)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서, 신체가치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표 9는 신체가치척도의 하위요인들과 생전/사후의 장기기증의도와 상관관계수이다. 전체 표본에서는 신체조작성과 신체편향성 모두 장기기증의도와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별로 따로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는 전체 표본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지만, 여성표본의 경우 신체편향성과 장기기증 의도 사이에 작지만 유의미한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우, 건강에 비해 외모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장기기증 의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운동’ 범주의 세 문항은 체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헬스, 요가 등), 운동을 통한 다이어트, 체중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문항이었고, ‘섭식’의 세 문항은 식이조절을 통한 다이어트, 건강보조제 섭취, 살을 빼거나 찌기 위한 약복용에 관한 문항이었다. ‘미용’ 범주로 묶은 문항들은 네일아트, 헤어무스 사용, 장신구, 체형보정용 의류, 헤어관리, 키높이 신발, 피부관리, 피어싱, 얼굴경락, 서클렌즈에 관한 10문항이었고, ‘성형’에는 점제거수술, 치아미백, 미용문신, 쌍꺼풀수술, 안면윤곽 수술, 코성형수술, 시력교정 수술, 입술성형수술, 유방(가슴) 수술, 키높이수술, 지방흡입 수술의 11문항이 포함되었다.

표 9. 신체가치척도의 하위요인과 장기기증의도 간의 상관

		전 체	생전장기기증의도	사후장기기증의도
전 체 (n=512)	신 체 조작성	.058	.054	.053
	신 체 편향성	-.058	-.042	-.067
남 성 (n=276)	신 체 조작성	.044	.051	.031
	신 체 편향성	-.045	-.018	-.064
여 성 (n=236)	신 체 조작성	.031	.015	.044
	신 체 편향성	-.174**	-.165*	-.159*

\*\*\*  $p < .001$ , \*\*  $p < .01$ , \*  $p < .05$

### 종합 논의

신체이미지에 관한 많은 외국의 연구들은 남성보다는 여성에, 자신의 신체와 관련한 긍정적 태도나 행동보다는 부정적 측면에 관심을 두었다. 최근에는 긍정심리학의 영향으로 긍정적 신체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연구(Cash, 2002)나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신체이미지를 측정하려는 시도(예, Avalos, Tylka, & Wood-Barcalow, 2005)가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표본을 토대로 척도를 개발했던 연구들도 해당 척도를 남성표본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예를 들면, OBC; McKinley, 2002). 하지만 이들 척도들은 거의 예외없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지각(신체 사이즈 지각)과 평가(신체존중감, 신체만족도 등) 또는 행동경향(신체감시, 신체의식 등)을 측정하는 것이며, 신체의 의미지각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에 관한 가치관을 구성하는 다양한 신념의 일부로서 신체조작성(신체의 자의적 조작에 대한 신념)과 신체편향성(체형과 체기능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했다.

연구 1의 결과는 신체조작성 척도와 신체편향성 척도가 대학생표본에서 각기 구분되는 구성개념임을 보여주었다. 이런 결과는 김완석 등(2006)의 연구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것이다. 또한 연구2의 교차타당화 결과는 이러한 두 요인구조가 고등학생 표본과 대학생 표본, 그리고 남성표본과 여성표본에서 모두 타당함을 보여준다.

두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연구 1에서는 .89와 .88, 연구2에서는 .87과 .84로 나타나서 받아들일 만한 내적 합치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신체조작성 척도의 경우는 .67, 신체편향성 척도는 .71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시 간격이 4주로 비교적 길었고, 또한 문항의 길이가 각기 8문항으로 짧은 척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크게 부정적인 결과는 아닌 것으로 본다. 신체이미지에 관한 우리나라의 척도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외국의 자료들에서 신체이미지 관련 척도들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보고한 결과를 보면 19문항짜리 BIQLI(Body Image Quality of Life Inventory)를 2-3주 간격으로 잰 때 .79(Cash & Fleming, 2002), 2주 간격으로 잰 때 .82(Cash, & Grasso, 2005) 등으로 나타났고, Cash와 Grasso(2005)가 BIDQ(Body Image Disturbance Questionnaire)를 비롯한 7개의 척도를 2주 간격으로 반복 측정한 결과는 .6~.88 정도였다. 이들 척도들은 대체로 10개 이상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측정간격도 2주-3주로 본 연구보다 짧았다.

성별이나 종교에 따라 예상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신체를 자의적인 조작을 해도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크며, 종교가 없거나 있더라도 독실하지 않은 사람이 독실한 신자들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김완석 등(200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비슷하게, 신체의 기능보다는 외적인 체형을 중시하는 경향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독실한 신자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이런 경향이 낮았다. 하지만, 신체조작성이나 신체편향성 모두 고등학생과 대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 연령범위가 훨씬 더 넓었던 김완석 등(2006)의 연구에서 신체조작성과 신체편향성 모두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던 결과나 김완석과 김철민(2002)의 연구에서 신체편향성의 연령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연령의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 오히려 이런 결과는 본 연구표본의 연령범위가 좁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건강보다는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인 신체편향성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예견가능한 것이다. 예컨대, 바디이미지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사회문화적 영향, 특히 대중매체의 영향은 여성이 스스로를 객체로 인식하게 만들며, 그 결과로 부정적인 신체경험을 하게 된다는 Frederickson과 Roberts(1997)의 객체화 이론(Objectification theory)을 토대로 하고 있는 바, 이 이론에 따르면 여성은 자신의 몸을 타인이 바라보는 대상 또는 타인에게 보여지는 대상으로 인식함으로써, 신체의 내적인 기능인 체기능보다는 신체의 외면적 특성인 외모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남성에 비해 자신

의 외모를 체기능에 비해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신체에 대한 자의적 조작을 더 많이 수용한다는 결과는 아직 적절한 설명을 찾아보기 어렵다. 향후 연구가 필요한 주제로 생각된다.

한편, 신체조작성 척도와 신체편향성 척도는 OBC의 하위척도들이나 MBSRQ의 외모지향성 척도와 예상했던 상관관계 양상을 보여주었다. 신체의 자의적 조작을 허용하는 경향이 클수록 자신의 외모를 더 많이 의식하며(감시성),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수치심)이 높은 경향이 있고, 외모변화에 대한 통제력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외모지향성이 더 큰 경향이 있었다. 또한 체형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을수록(신체편향성 점수가 높을수록) 감시성과 수치심, 외모지향성은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통제신념과는 별 관계가 없었다.

두 척도는 신체관련 행동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신체관련 행동의 발생여부는 신체기타라는 심리적 변수들 외에 다양한 환경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연구2의 결과들은 신체조작성과 신체편향성 척도가 이들 환경변수와 더불어 다양한 신체다루기 행동을 설명하는데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신체조작성과 신체편향성 척도가 운동이나 섭식과 같은 비교적 심리적 부담이 적은 신체관리행동에 비해 미용이나 성형처럼 덜 일반적인 신체관련 행동 범주와 더 높은 상관계수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대부분의 부적응적 신체관련 행동들이 비일상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척도의 높은 유용성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들은 신체조작성 척도와 신체편향성 척도가 신체에 대한 신념으로서 신체를 자의적으로 조작해도 되는가의 체형과 체기능 중 어느 쪽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가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충분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지고 있음을 지지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김완석 등(2006)의 연구의 주요결과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함으로써 두 척도가 여대생과 같은 특정 인구집단 뿐 아니라 남성과 고등학생집단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우수한 심리측정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이 분야의 다른 연구들이 주로 섭식이나 신체관련 장애와 같은 부적응적 행동을 준거를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과 달리 정상인들의 일상적인 신체관련 행동과 의도라는 준거를 잘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도 널리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념화하고 측정도구를 개발한 신체조작성과 신체편향성은 일종의 당위적 신념으로서 많은 경우 현실적 신념과 다를 수 있다. 당위적 신념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기보다는 종교적이거나 교육적인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이에 비해 현실적 신념은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서 이들 둘은 개인 내에서 충돌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아주 흔하게 들 수 있다. 예컨대 많은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당위적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현실적 신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연구자의 견해로는 당위적 신념과 현실적 신념은 모두 행동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바, 다양한 상황적 특성에 따라 그리고 행동의 중요성에 따라 각기

상대적인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 당위적 신념은 현실적 신념에 비해 일상적인 행동보다는 중요성이 큰 행동들에 대해 예측력이 더 클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신체조작성과 신체편향성은 운동이나 섭식과 같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신체를 통제하는 행동들보다는 미용이나 성형처럼 직접적인 방식으로 신체를 통제하는 행동들에 대해 예측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기기증과 같은 더욱 중요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여성표본에서 신체편향성을 제외하면 예측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당위적 신념과 현실적 신념의 상대적 영향력을 결정하는 환경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신체이미지와 관련한 현실적 신념으로는 신체의 도구적 가치를 그 예로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요즈음 여성의 성형수술은 그것이 갖는 생태적가치가 그 원인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졸업을 앞둔 남성들의 피부관리나 화장도 면접시험에 도움이 되리라는 현실적인 생태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진화심리학에 따르면 자연계에서 암수는 모두 이성 쪽의 환심을 살 수 있다는 생태적 가치 때문에 다양한 치장행동을 하는 바, 인간의 신체관리 행동도 이러한 생태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신체조작성과 신체편향성 외에도 신체에 관한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신념 차원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신체의 가치에 대한 도구적 신념은 그 예가 된다. 향후 더 정교한 개념화와 측정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의 연구들이 주로 대학생 여성표본을 대상으로 척도를 구성하고 나서 다른 연령집단이나 남성집단에 대한 척도의 적합성을 확인한 것과 달리, 처음부터 남성과 여

성표본을 동시에 다루었고 그런 의도로 척도를 구성했기에 척도문항들의 성별 부적합성을 회피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남성에게 부적절한 문항들이 되거나(예를 들면, Avalos, Tylka, & Wood-Barcalow, 2005), 정상표본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척도가 되는 약점을 피할 수 있었다. 반대로 본 연구의 표본이 임상표본이 아니라 일반인 표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섭식장애나 신체관련 장애(예를 들면, 성형중독이나 기형장애 등)을 가진 임상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신체존중감이나 신체만족도는 종종 성기능의 문제(Wiederman, 2002), 신경성 거식증(Garner, 2002), 신경성 폭식증(Stice, 2002), 신체기형장애(Phillips, 2002) 등 다양한 부적응적 신체관련 행동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비교적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신체존중감이나 신체만족도는 주로 외모존중감이나 외모만족도라는 측면에서만 다루어진다. 서론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신체개념이 외모뿐 아니라 최소한 건강, 기능 등의 측면을 포함한다는 면에서 이러한 신체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신체존중감 개념과 측정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김완석 등(2006)은 신체존중감을 체형존중감과 체기능존중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향후 더욱 정교한 개념화와 더불어 세련된 척도개발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대 한국인들은 신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반면에, 신체존중감이나 신체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체형관리업체 마리프랑스가 아시아 여섯 나라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여성은 외모에 만족하는 비율이 29%로 다른 아시아 나라의 여성들이 최소 42% 이상인

것에 비추어 매우 낮으며, 현재 가장 원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외모를 꼽은 비율도 38%로 평균 22%에 비해 훨씬 높았다(한겨레, 2005.3.7). 비슷하게, 취업포털 커리어가 남녀 직장인 1,532명을 상대로 외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4%가 '직장생활하면서 외모를 바꾸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결혼이나 연애하고 싶을 때'(18.1%), '외모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15.2%)가 각각 2위와 3위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07. 1. 17). 그 외에도 최근에는 신체와 관련된 장애로서 성형중독이 사회적 관심이 되기도 했고, 우리나라 여성들의 높은 성형수술 비율과 과도한 다이어트, 비만문제 등 신체다루기와 관련된 문제들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주로 선진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체이미지 관련 개념들과 측정도구들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개인 사회적 문제를 이론적이나 실증적으로 접근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 좋은 측정도구의 개발은 꼭 필요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가 이 분야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심리학자들이 이런 문제를 다룬 연구로는 김완석과 동료들의 연구(김완석과 김철민, 2002; 김완석과 김해진, 2005; 김완석과 차주화, 2006)의 연구 외에 척도개발과 섭식장애를 다룬 이상선과 오경자(2003, 2004), 성형과 같은 신체변형에 대한 매스컴의 영향을 다룬 오상화와 나은영(2002), 신체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박은아(2003), 자기존중감과 신체존중감이 화장에 대한 태도와 성형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기범과 차영란(2006) 정도를 꼽을 수 있을 뿐이다. 많은 심리학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김기범, 차영란 (2006). 여성의 화장에 대한 태도와 성형의도에 대한 자기존중감과 신체존중감의 역할분석. 한국심리학회 2006 년도 연차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580-581.
- 김완석, 김철민 (2002). 몸의 심리학: 몸에 대한 생각과 소비행동. 한국 소비자광고 심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20.
- 김완석, 김해진 (2005). 여성의 신체이미지 지각이 신체관련 소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6(3), 27-40.
- 김완석, 차주화 (2006). 신체가치와 소비행동: 척도개발과 활용을 위한 탐색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7(3), 455-485.
- 박은아 (2003). 신체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 한국과 미국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35-56.
- 연합뉴스. 직장인 92% "외모 바꾸고 싶은 적 있다". 2007. 1. 17
- 오상화, 나은영 (2002). 대중매체 소비가 여대생의 신체변형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매개 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3(2), 141-158.
- 이상선, 오경자 (2004). 몸매와 체중에 근거한 자기평가와 신체불만족이 여대생의 이상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1), 91-106.
- 이상선, 오경자 (2003).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설문지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13-926.
- 이정모 (1997). 심리학방법론의 개념적 재구

- 성: 서양심리학방법론의 시사. 한국심리학회 1997년도 추계 심포지움: 동양심리학의 모색, 155-180.
- 조선명 (2000).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겨레. 한국여성 외모만족도 아시아 6개국 중 최저. 2005. 3. 7.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valos, L., Tylka, T. L., & Wood-Barcalow, N. (2005). The Body Appreciation Scal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Body Image, 2*, 285-297.
- Brown, T. A., Cash, T. F., & Mikulka, P. J. (1990). Attitudinal body image assessment: Factor analysis of the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1&2), 135-144.
- Carroll, J. (1945). The effect of difficulty and chance success on correlations between items or between tests. *Psychometrika, 10*, 1-20.
- Cash, T. F. (1990).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 Questionnaire. In Thompson, J. K. *Body image disturbance: Assessment and treatment*. Pergamon Press.
- Cash, T. F. (2002). Cognitive-behavioral perspectives on body image. In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pp.38-46). New York: Guilford.
- Cash, T. F. (2004). Body image: Past, present, and future. *Body Image, 1*, 1-5.
- Cash, T. F., & Fleming, E. C. (2002). The impact of body-image experiences: Development of the Body Image Quality of Life Inven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31*, 455-460.
- Cash, T. F., & Grasso, K. (2005). The norms and stability of new measures of the multidimensional body image construct. *Body Image, 2*, 199-203.
- Garner, D. M. (2002). Body image and anorexia nervosa. In T. F.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pp. 295-303). New York: Guilford.
- Fredrickson, B. L., Roberts, T-A. (1997).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173-206.
- Gibbons, R. D., Clarke, D. C., Von Ammon-Cavanaugh, S., & Davis, J. M. (1985). Application of modern psychometric theory in psychiatric research.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19*, 43-55.
- Harre, R. (1991). *Physical being: A theory for a corporeal psychology*. Oxford: Blackwell.
-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rmer, S.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17*(1), 81-89.
- McKinley, N. M. (2002). Feminist perspectives and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In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 practice*(pp.55-62). New York: Guilford.
- McKinley, N. M., & Hyde, J. S. (1996).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 181-215.
- Muthén, B. O. (1978). Contributions to factor analysis of dichotomous variables. *Psychometrika*, 43, 551-560.
- Parry, C. D., & McArdle, J. J. (1991). An applied comparison of methods for least-squares factor analysis of dichotomous variables.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5, 35-46.
- Phillips, K. A. (2002). Body image and body dysmorphic disorder. In T. F.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pp. 312-321). New York: Guilford.
- Pruzinsky, T., & Cash, T. F. (2002). Understanding body images: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In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pp. 3-12). New York: Guilford.
- Stice, E. (2002). Body image and bulimia nervosa. In T. F.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pp. 304-311). New York: Guilford.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pp. 56-75). Thousand Oaks, CA: Sage.
- Wiederman, M. W. (2002). Body image and sexual functioning. In T. F.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pp. 287-294). New York: Guilford.
- Williams, E. F., Cash, T. F., & Santos, M. T. (2004). Positive and negative body image: Precursors, correlates, and consequences. *Paper presented at the 38th annu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Behavior Therapy*.

1 차원고집수 : 2007. 4. 20.

수정원고집수 : 2007. 6. 8.

최종게재결정 : 2007. 6. 17.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007, Vol. 26, No. 1, 1-21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ody-related Value Scales: Body Value Inventory-Operatability and Body Value Inventory-Inclination

Wan-Suk Gim

Yeon jae Ryu

Ajou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designed to develop a conceptually grounded and psychometrically sound body-related value scale which is to measure operatability (BVI-O; Body Value Inventory-Operatability) and inclination (BVI-I; Body Value Inventory-Inclination). Operatability defined as a belief about “whether the operation of human body by artificial means can be accepted personally?”, and Inclination defined as a belief about “which one is more important than the other between one’s body shape(appearance) and one’s body function(health)”. In study 1, 23 items(13 for Operatability and 10 for Inclination) were developed based on the items used in Gim and Cha(2006) and examined their psychometric features with 281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Item analysis resulted in 21 items(12 and 9 for each construct), and factor analysis revealed two factor structure(all of the item is heavily loaded on their relevant dimensions). In study 2, several psychometric features of the scale were examined with 524 high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using SEM supported for the existence of two unidimensional subscales. Internal consistencies were .87, and .84 and test-retest reliabilities were .67, and .71 for Operatability Scale and for Inclination Scale, respectively. Correlation patterns of the two scales with sub-scales of OBC(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and Appearance Scale of MBSRQ were significant but not high as expected. Finally, evidence was also provided for criterion related validity. The two sub-scales explained significant variations of experience and intention for body-related behaviors such as exercise, diet, cosmetics and cosmetic surgery. Several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ith these scales were discussed.

*Key words:* Body Value Inventory-Operatability(BVI-O), Body Value Inventory-Inclination(BVI-I),  
*body image*